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2호 【루계 제26196호】 주체107(2018)년 11월 18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김용수동지, 국무위원회 일군들인 김창선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부위원장 리태일동지를 비롯한 도의 책임일군들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저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사상교양거점들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꾸리고 어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생산장성과 기적창조의 기본열쇠도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에 달려있는것만큼 첫째도 둘째도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앞으로도 공장당조직이 지금처럼 계속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로동계급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더 큰 힘을 넣음으로써 공장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변심없이 굳센 의지와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로선을 맨 앞장에서 받들고 헤쳐나가는 투사들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보적인 영상사진문헌들과 사적물들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떠선 대관유리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굴지의 광학유리생산기지로 전변되여왔다고, 지난 기간 공장의 로동계급은 국가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광학유리제품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견실하게 당정책을 받들어왔다고 하시며 공장로동계급이 걸어온 투쟁행로를 값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생산직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를 료해하시고 공장에서 새로 생산하고있는 유리제품들과 광학기재들을 보시였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현대적인 광학측정설비들을 개발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새 기술도입과 기술혁신투쟁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광학측정설비들을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공장의 제품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대관유리공장에서 만든 유리제품들과 광학기재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것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발전해가고있다고, 지금의 현대화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공정과 제품검사공정에 대한 현대화사업과 새 기술도입사업에 계속 힘을 집중하여 더 좋은 광학유리와 측정설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모르고 로동생활과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도록 합숙과 구내식당도 잘 지어주고 문화후생시설도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재 건설자재가 보장되지 못해 건설을 다그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료해하시고 현지에서 대책을 취해주시는 온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새 제품개발과 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대관유리공장의 전체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과 뜻깊은 인연을 맺은 공장, 자신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정든 공장이라고 하시며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당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나라의 과학교육발전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찬란한 래일을 앞당기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궁지높고 격동적인 시대에 살고있다.

끝없는 승리로 빛나는 영광의 시대!

승엄한 그 무름 조용히 새겨볼수록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최후승리의 래일을 앞당겨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매혹과 흠모로 가슴이 젖어들고 그럴수록 그이의 심장을 불태우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천만의 가슴에 격조높이 메아리쳐온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만의 심장마다에 억척같이 새겨주신 이 위대한 혁명정신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가장 영광넘친 시대를 눈부시게 펼치며 광명한 미래에로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는것 아니던가.

걸어온 승리의 날과 달들을 감회깊은 추억속에 돌이켜보며, 보다 휘황찬란한 번영의 천만리를 눈앞에 그려보며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이 조선은 영원토록 무궁강대하리라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고있다.

승리와 패배, 영광과 치욕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가 있고 하늘땅차이와 같은 두 세계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한순간, 한걸음에 의해 좌우된다. 앞으로 내디딘 한걸음과 뒤로 주춤한 한순간이 이런 두 운명을 빚어내는것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앞에 주저하여 치욕의 나락에 굴러떨어져 헤매이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우리 조국은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욱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그 모든것을 산산이 짓부셔버리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승리만을 이룩해나가고 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몇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시였던 력사의 그날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가들은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아야 한다고,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벼려주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날카로운 바람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재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에 모진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도 오직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철석의 의지가 얼마나 세차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우리가 가는 앞길에 아무리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우리는 기어이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떨쳐야 한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방식은 언제나 공격방식이고 우리 인민에게 새겨주시는 뜻도 완강한 공격정신이다.

주체102(2013)년 11월 휘는이 강산같이 내려쌓인 백설천지의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삼지연군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몰아치는 눈바람을 맞으시며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세워진 삼지연대기념비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이라고, 삼지연대기념비앞에 서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하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여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속에는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이 땅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넘원이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실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억세게 자리잡고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과감히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완강한 공격정신이 온 나라에 나래치도록 하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후승리에로 향한 진군길을 앞장에서 헤치신다.

몇해전 1월의 강추위속에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문헌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것은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하고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돌파해나가는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다는 사상이였다.

인민을 위한 새 거리를 구상하실 때에도 그이의 마음속엔 백두의 칼바람이 휘몰아치고있었고 눈 끓는 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에도 그이의 심중에는 무비의 공격정신으로 일관된 백두의 혁명정신이 굳건히 자리잡고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요람, 세상에 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아난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을 돌아보실 때에도, 황금해의 새 력사를 안아온 희한한 불고기대풍앞에서 노래 《바다 만풍가》의 한 구절을 부르실 때에도, 종앙양묘장에서 수림화, 원림화의 불길을 지펴주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온넋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세차게 맥박치고있었다.

언제인가 인민군대의 한 건설장을 찾으신 그날 경쟁도표판을 보시며 우리 원수님 얼마나 흐뭇하게 웃으시였던가. 경쟁도표판에 붉은 줄을 하나 그어도 불굴의 공격정신을 만영하는 병사들, 그런 높은 리상과 열망으로 조국의 전진을 떠미는 우리 병사들이 장하고 대견하시여 그처럼 기뻐하신것 아니랴.

인민군대가 일떠세운 창조물들을 보시며 우리 군인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최고사령관이 로동계급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우리 당에서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격정을 금치 못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우리 원수님의 혁명령도는 백두산악과 같이 억세고 백두의 칼바람과 같이 맹렬한 공격전의 련속이다.

바로 이 길에서 주체혁명의 승리의 력사가 꿋꿋이 이어졌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우리가 잠시라도 주춤하였다면 이 땅에 거세차게 타번지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며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리는 생산정상화의 통음에 대하여 과연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은 만능의 보검이며 최후승리의 원동력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오늘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당이 가리킨 한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사람, 열백밤을 패고 온넋과 심장을 바쳐서라도 당의 구상과 결심을 현실로 펼쳐놓는 사람이 참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이다.

백두에서 시작된 공격전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최후승리의 찬란한 래일은 반드시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믿음으로 지펴주신 혁신의 불길

정신력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제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인민대중의 투철한 자주정신, 신념과 의지의 힘이다. 인민대중의 불굴의 정신력이 발양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되게 된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인민을 찾아가시였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체98(2009)년 1월 어느날이였다.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저 혁명사적교양실에 들리시여 공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당에서 준 과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사관철한 공장의 전세대 로동계급의 위훈자료를 보아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는 어려웠던 전후시기에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변변한 설비 하나 없는 형편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뜨락또르를 만들어냈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공장의 일군들은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고난과 시련을 과감히 헤쳐온 전세대 로동계급의 빛나는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나가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불러일으키면 1950년대에 맨손으로 뜨락또르를 만들던 때와 같은 강의한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농업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뜨락또르생산문제를 풀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하늘같은 믿음을 주시려, 이들의 심장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투철한 각오로 높뛰게 하시려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

이날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믿음은 이룬이 아니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상화와 현대화사업에서 나서는 강령적 카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에게 이 공장도 1950년대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상을 높이 떨친 이름있는 공장인것만큼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굳은 각오를 가지고 한결같이 일떠서면 일이 잘될것이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안친선유리공장과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이 경쟁에서 금성뜨락또르공장이 승리자가 되기 바란다고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듯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안겨주시니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필승의 신심이 차넘쳤다.

그후 공장의 뜨락또르와 부속품생산에서는 혁신이 일어났다.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타오른 새로운 혁신의 불길, 그것은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새겨안은 공장로동계급의 강의한 정신력의 분출이였다.

본사기자 김원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일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방문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꾸바공화국,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을 공식방문하며 메히꼬합중국 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나라들을 방문하게 된다.

김 영 남 동 지 가 오만추장국 추장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마스까트

오만추장국 추장

까부스 빈 싸이드페하

나는 오만추장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나라의 부흥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11월 17일 평 양

자력갱생의 넋을 심어주시던 나날에

혁명승리의 고귀한 지침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 경제를 복구하고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희생기가 큰 작용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지난날에는 수십만의 일본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추격하였지만 오늘은 그와는 대비도 할수 없이 막강하고 포악한 제국주의세력이 우리 나라를 압살하려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시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살고있는셈입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가 살아나갈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항일혁명선렬들이 고난의 행군과정에 발휘하였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그대로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입니다.

우리는 항일전쟁시기뿐아니라 새 조국건설시기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락관주의정신으로 만난을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교시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승리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

흥남땅에 울려퍼진 불멸의 선언

주체100(2011)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찾으시고 어느 한 공정건설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대각전장을 방불케 하는 건설장에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의 구호가 기폭처럼 나붓기고 있었다.

설비조립정형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통성로동계급이 만든 설비를 보아주시면서 통성의 로동계급이 최신기술을 요구하는 복잡한 설비들을 척척 만들어내고있는 것을 보면 재간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때 기업소의 책임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며칠전에 와서 조선사람들이 이 설비를 만들지 못할줄 알았는데 이번에 와보니 다 만들어 설치까지 해놓았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된 자력갱생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세찬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불멸의 선언이 되여 흥남땅에 울려퍼지는 력사의 순간이였다.

값높은 평가, 크나큰 믿음

주체104(2015)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에 나오시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차체의 벽면을 손수 쓸어보시고 지하전동차에 오르시여 의자에도 앉아보시며 더 훌륭하게 완성하기 위한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의 귀중한 창조물이 태여난데 대하여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며 이번에 우리가 지하전동차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낼수 있은것은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때문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당의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고 우리 식의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기어이 만들어내고야만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같은 주체혁명의 핵심력량이 있어 우리의 10월 10일, 로동당생일이 더욱 빛나는것이라는 최상최대의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값높은 평가속에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전세대 로동계급이 발휘하였던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본사기자 김일권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의 중요성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자기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며 세계에 빛내이려는 천만대중의 불타는 헌신성에 의하여 추동되는 전인민적인 애국위업이다.

당이 내세운 시간표대로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면 인민들의 애국충정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북돋아주는데서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에게 슬기롭고 아름다우며 강의한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심어주는데서 국수, 국견과 같은 국가상징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상징이란 다른 나라와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해당 국가의 공식적표징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호, 국장, 국기, 국가, 국어, 국화, 국수, 국조, 국견, 국주 등이 속한다.

국가상징들에는 해당 국가의 형태와 정치적의지, 력사적전통과 민족적특성, 자연지리적특성 등이 반영되여있으며 자기 나라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의 감정이 비껴있다. 사람들은 국가상징을 통하여 자기 나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며 자기 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가려는 마음을 키우게 된다.

우리 나라 국기, 국장을 비롯한 국가상징들은 그것이 담고있는 의미의 숭고성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심장속에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의 혁명열, 애국열을 총폭발시키는데서 의의가 크다.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은 무엇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성격과 사명, 발전방향에 대해 잘 알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를 묻고 사는 나라가 어떤 국가이며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가 하는것을 잘 알때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게 되며 부강조국건설에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게 된다.

국호와 국장, 국기, 국가를 비롯한 우리 국가상징들에는 인민이 주인된 나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성격과 사명, 발전전망과 위력 등이 집대성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우리 나라 국호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정치적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인민의 국가라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성격과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는 이 국호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것으로서 인민들에게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리에 떨치는 뜻깊은 국호이다. 국장과 국기, 국가에는 우리 공화국이 계승하고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수령의 두리에 전민이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찬란한 문화, 부강하고 문명한 자주의 강국으로 위용떨칠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 우리 나라를 영원히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강화발전시켜나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상징적으로 잘 반영되여있다.

누구나 우리 나라의 국가상징들에 담겨져있는 깊은 뜻을 새겨보면 볼수록 우리 국가,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에 힘싸이게 되며 몸과 마음 다 바쳐 위대한 조국을 세계만방에 떨쳐갈 철석의 각오와 의지를 가다듬게 된다.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은 다음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자존심, 조국애와 민족애는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깊이 간직하고 일상생활에서 민족적인것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데로부터 생겨난다. 민족의 우수하고 아름다운 전통에 대해 잘 모르고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나갈줄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가 될수 없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성에는 조선사람의 슬기와 재능, 억센 기상과 애국정신,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이 체현되여있다. 국어와 국화, 국수, 국견을 비롯한 국가상징들에는 우리 민족의 우수하고 아름다운 민족적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잘 살려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가 력력히 맥박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국어—조선어는 오랜 력사적뿌리와 우수한 구조적특성을 가진 세상에 자랑할만 한 언어이다. 세계언어학자들이 평가하는것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개의 민족어중에서 조선어처럼 말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울림이 아름다울뿐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문법이 째어있는 발전된 언어는 없다. 조선의 국화—목란, 국수—소나무, 국조—참매, 국견—풍산개를 비롯한 국가상징들에는 슬기롭고 근면하며 강의하고 용감한 조선민족의 넋과 기상이 그대로 체현되여있다.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나가야 사람들이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되며 모든 분야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는것과 함께 시대와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을 창조하면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게 된다.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은 또한 온 사회에 국가상징들을 존엄있게 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장, 국기, 국가, 국화, 국수, 국견 등은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공식적인 표징이다. 애국심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자기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감정은 국가상징들을 대하는 립장과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군인들은 태오의 앞장에서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따라 불뿜는 원쑤의 화점도 두려움없이 맞받아나갔고 후방의 인민들은 적들의 야만적인 폭격속에서도 우리의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증산투쟁을 결사적으로 벌렸다. 국가행사때와 예술공연관람시 장중하게 울리는 애국가의 선률에 사람들이 일어서서 승엄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시하는것도,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한 우리 체육인들이 높이 솟구치는 공화국기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것도 바로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는 고상한 감정의 표현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의 넋과 기상을 상징하는 국화, 국수, 국견, 국조를 귀중히 여기고 적극 보호하며 온 나라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 온갖 지성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목란과 소나무, 참매, 풍산개의 생물학적특성에 대한 상식을 잘 알고 그것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다.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나가는 과정은 그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심장깊이 쪼아박는 과정으로 된다.

주체조선의 모든 승리와 세기적변혁, 고귀한 재부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생이 어려있다. 우리의 국호와 국장, 람홍색공화국기로부터 국수, 국조, 국견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국가상징들에도 나라와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세계만방에 빛내여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용심깊은 뜻과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면서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진정한 인민대중중심의 나라라는 의미와 함께 국가를 광범한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아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제정해주시였으며 국장과 국기, 국가를 비롯하여 국가상징들에 우리 공화국의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민족적인 성격들이 다 반영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시기 위하여 국장을 원작그대로 완성시키고 세척화하도록 하시여 김일성민족의 만년재부로 길이 빛내여주시였으며 국조를 비롯한 국가상징들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적특성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를 이어가시는 나날에 우리의 국가상징들이 철두철미 인민의 절대적인 찬성을 받는 민족적인것, 인민적인것으로 더욱 빛을 뿌리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은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닮은 풍산개가 조선의 국견으로, 우리 인민들이 즐겨찾고 대중화된 평양소주가 국주로 정해진데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이처럼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은 인민들에게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내세우시려고 한생을 깡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국가상징들을 존엄있게 대하고 소중히 여기며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리강호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여 황금해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나가자

바다에도 실농군이 있다

련진수산사업소에서

련진수산사업소의 로창작업반이 위치한 바다가기슭에는 이제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어로공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바다가마을사람들까지 떨쳐나 그물을 당기고있었던것이다.

그물이 기슭을 가까이할수록 바다물면은 펄펄 뛰는 물고기들로 즉가마끓듯 하였다.

전어떼가 이곳 작업반이 위치한 언안으로 밀려들었던것이다. 그들은 이날에만도 앉은자리에서 많은 량의 전어를 잡았다.

우리와 동행한 일군은 그날의 기쁨을 금치 못해하며 인공어초를 잘 조성한 덕이라고, 지금도 카끔 생각지 않았던 물고기떼가 자주 밀려들어오군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다.

로창작업반에서 인공어초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린것은 오래전부터였다.

그때 반장사업을 갓 시작한 김철남동무가 자체의 힘으로 해마다 수백t의 돌과 나무단을 바다에 넣어줄것을 제의하자 일부 사람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불과 10여명정도인 작업반 인원으로 현행생산을 보장하면서 그렇게 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였기때문이다.

그러나 내밀성이 강한 작업반장은 군사복무시절의 열정과 기백으로 이렇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수산자원보호증식사업은 당정책관철전이다. 우리가 힘들다고 돌이나 싸리나무단같은것을 양식장에 넣어주는 일마저 주지 한다면 어떻게 애국에 대해 말할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선자리에서 돌모으기작업에 나서는것이였다.

이런 그를 어찌 작업반원들이 따라나서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날부터 로창작업반원들은 하루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돌이나 싸리나무, 벼짚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바다날씨가 나쁜 날이나 휴식일에도 이들은 인공어초조성에 필요한 돌이나 싸리나무를 하기 위해 주변의 산들에 올랐다. 여기에 반원들의 가족들까지 합세하니 며칠이면 여러t의 돌이나 싸리나무, 벼짚 등이 확보되군 하였다.

그 나날에는 애로와 난관도 있었다.

하지만 애국의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운 이곳 작업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돌을 담을 수많은 그물을 자체로 만들어 보장한 사실을 놓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돌을 바다에 넣자면 카마니나 그물같은것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작업반에는 카마니도 그물도 없었다.

그렇다고 애써 마련한 돌을 그대로 바다에 넣을수는 없었다. 자기들의 앞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킬 한마음을 안은 작업반원들은 파바줄을 수집하여 그물을 만들어 리용할것을 발기하였다.

자신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모두 떨쳐나선다면 그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파바줄을 얼마든지 모을수 있었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작업반에서는 파바줄수집사업과 그물뜨기작업이 힘있게 전개되였으며 많은 량의 그물을 만들어 돌넣기에 리용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적지 않은 카마니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인공어초조성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였다.

사업소의 당조직에서도 이들의 투쟁을 적극 떠밀어주고 내세워주었다.

이렇게 인공어초조성에 품을 들이니 결과는 좋았다. 다음해부터 양식장의 생산조건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해삼과 성게, 조개와 같은 수산자원도 부쩍 늘어났다.

하여 작업반은 해마다 수산물생산량을 늘이였으며 그 나날 사업소가 자랑하는 혁신자집단이 되였다.

우리와 만난 작업반장 김철남동무는 이제는 바다에 나가는 배들이 돌과 나무단 등을 싣고 양식장에 들리는것이 보편적인 일로 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인공어초조성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할수 있는 일이며 큰 투자가 없이도 나라의 귀중한 수산자원을 늘어나갈수 있는 실리가 나는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증해주는 이야기였다.

본사기자 김국철

수산업발전의 중요한 요구

수산자원은 나라의 중요한 자연부원의 하나이며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부이다.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인민생활을 높이고 후대들에게 좋은 생활환경과 풍만한 바다자원을 넘겨줄수 있다. 특히 세 면이 바다를 끼고있고 도처에 크고작은 강하천들과 호수, 저수지들이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인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는것은 수산물생산을 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며 우리 나라 금수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후대들에게 좋은 생활환경과 풍만한 자원을 넘겨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수산자원보호증식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해안선이 길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수산부문의 힘만으로는 이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수 없으며 광범한 군중이 말동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각지 일군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근로자들속에 당의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보호증식과 관련한 국가의 법규범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그들이 나라의 귀중한 수산자원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연해어장에서 수산자원보호시기와 보호구역, 어구와 어로방법을 정확히 규정하고 엄격히 지켜 정착성물고기자원과 새끼고기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특히 알낳이시기에 물고기를 비롯한 바다동식물을 잡거나 뜯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담당수역에 양식시설물만들어넣기와 돌넣기, 새끼고기넣어주기를 비롯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

수산자원보호증식과 물고기잠이를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하여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수 있다.

해당 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수산자원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수산물생산규모를 정확히 규정해주며 어느 시기에는 어떤 물고기잠이를 금지하고 어느 수역에서는 해삼이나 전복, 밤조개, 미역, 김 등이 잘 자라니 보호증식해야 한다는것과 같은 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증식사업도 과학기술을 앞세워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수산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수산자원보호증식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특히 우량품종의 물고기를 육종하고 선진적인 양어양식기술과 효률적인 배합먹이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감독통제기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증식에 해를 주는 금지된 어구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 바다동식물의 서식조건을 파괴하거나 비법적인 방법으로 강과 저수지들의 물고기를 망탕 잡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수산자원보호정책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수산자원을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공민된 자각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먹이보장에서 중시한 문제

윤하종어사업소에서

양어에서 먹이는 종어, 물과 함께 3대요소중의 하나이다.

먹이문제를 풀어야 물고기생산에서 실리를 보장할수 있으며 증체률을 높이고 맛좋고 영양가 높은 물고기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알곡먹이의 비중을 줄이면서 먹이문제를 원만히 풀고있는 윤하종어사업소 일군들의 사업경험이 시사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어를 발전시키자면 물고기종자와 먹이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새끼물고기기르기에 필요한 먹이생산에는 적지 않은 알곡이 소비된다. 때문에 새끼물고기생산을 늘이는 문제가 론의될 때마다 의례히 알곡먹이보장이 함께 상정된다.

윤하종어사업소에서는 적은 알곡먹이를 가지고도 새끼물고기생산을 늘이고있다.

올해에도 사업소에서는 잉어와 룡정어, 붕어를 비롯한 수십만마리의 새끼물고기들을 생산하여 평양시안의 강들에 놓아주었으며 새 품종의 큰미꾸라지도 많이 생산하여 각 도의 종어사업소들에 보내주고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비결의 하나는 비알곡먹이를 적극 리용한데 있다.

사업소에서는 자체로 평화먹이를 만들어 먹이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새끼물고기생산을 늘이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큰단백풀과 짐승뼈를 비롯한 비알곡먹이를 물고기먹이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는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체로 생산한 큰단백풀을 발효처리하여 먹이로 리용하는 한편 시안의 여러 급양봉사망들에서 나오는 짐승뼈와 같은 부산물과 적은 량의 알곡먹이를 섞어 평화먹이를 생산하고있다. 그리하여 적은 알곡먹이를 가지고도 종전보다 더 많은 새끼물고기를 생산하고있다.

결코 절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다.

몇해전 새끼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문제가 상정되였을 때였다.

당시 일부 종업원들은 알곡먹이를 늘이지 않고서는 새끼물고기생산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의 립장은 달랐다. 큰단백풀을 비롯한 비알곡먹이를 적극 리용하면 얼마든지 새끼물고기생산을 늘일수 있었다.

이렇게 되여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비알곡먹이원천과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저류지와 양어못들에서 해마다 수십t의 큰단백풀을 생산하여 먹이보장에 리용하며 시안의 여러 급양봉사망들에서 나오는 짐승뼈와 같은 부산물들을 구해다 먹이생산을 늘일 방도도 찾아냈다. 뿐만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종전의 먹이생산설비를 평화먹이를 생산할수 있는 설비로 개조함으로써 적은 알곡먹이를 가지고도 더 많은 새끼물고기를 생산하게 되였다.

먹이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윤하종어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얻은 경험은 수산자원보호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새끼물고기를 생산하여 조국의 강과 호수에 물고기떼가 욱실거리게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심학철

방문기

양식자원을 늘여가는 긍지

◎ 락원수산사업소를 찾아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것은 수산업발전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해의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락원수산사업소의 앞바다는 수산자원보호증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있었다.

해빛을 받아 은구슬을 뿌린듯 반짝이는 물면우에 떠있는 양식배들과 창공을 날아예는 흰 갈매기들, 정답게 울리는 배고동소리, 락원만기슭에 자리잡은 락원수산사업소의 전경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락원수산사업소를 찾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풍치만이 아니였다.

애국의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가꾸어가는 이곳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미더운 모습이였다.

사업소에서는 바다가양식에 적합한 락원만을 리용하여 다시마와 미역, 섬을 생산하고있었으며 해삼과 피조개, 밤조개자원도 늘여가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기사장 김성호동무는 바다가양식을 발전시키는데서 바다동물배양장의 력을 단단히 보고있다며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배양탕크들과 분석실, 인공먹이생산공정이 갖추어져있는 배양장은 바다동물들의 인공배양과 생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꾸려져있었다. 배양탕크들에는 해삼과 굴은 물론 우레기와 보가지도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작업반장 김락원동무를 만났다.

그는 사업소에서는 해마다 수만마리의 해삼과 수많은 씨조개를 생산하여 바다에 놓아주고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해삼과 조개는 물론 우레기와 보가지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더 많이 자래워 바다에 놓아줄것을 계획하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에서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애국의 마음으로 받들어가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같은 열정을 느끼며 해삼과 굴이 자라는 탕크들을 차례차례 돌아보았다.

아직은 새끼들이 자라고있는 탕크들이였다. 그러나 어기서 자란 해삼과 굴을 비롯한 바다동물들이 멀지 않아 사업소의 앞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키리라는 생각은 저도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먹이배양장에도 들리였다.

바다에서 채취한 원종을 확대배양시켜 먹이를 만들어내고있는 먹이배양장의 곳곳에는 초기먹이가 담겨진 통들이 쌕 차있었다.

동행한 김락원동무는 초기먹이를 만드는것은 바다동물들을 자래우는데 못지 않게 품이 많이 들지만 작업반에서는 이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배양하여 놓아준 해삼과 씨조개들이 사업소의 앞바다에 한발 쪽 깔리게 될 래일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저절로 노래가락이 나오고 어깨가 올라간다고 말하면서 해풍에 한 구리빛얼굴에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그의 말에 호응하여 기사장은 사업소의 앞바다에서는 지금 수많은 해삼과 피조개들이 자라고있으며 여기에 미역, 다시마에 의한 혼합양식까지 배합하니 생산실적이 절로 높아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수산자원보호증식은 후손만대의 애국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바다동식물들의 배양과 양식을 더 잘하여 당의 수산자원보호정책을 앞장에서 받들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서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수산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의 마음을 뜨겁게 안아보며 수산사업소를 나섰다.

본사기자

시작부터 잡도리가 좋다

리원수산사업소에서

최근 리원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가재미를 인공적으로 자래워 바다에 놓아주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얼마전부터 가재미알에서 련이어 새끼들을 받아내고있으며 현재 그 마리수는 백수십만마리에 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단위의 사업성과에 대해 론하자면 일군들이 내세운 목표부터 분석해보는것이 좋다. 그것은 당정책을 대하는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가 사업목표에 뚜렷이 비끼기때문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가재미를 방류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밀고있는 리원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된다.

지난 8월 이곳 일군들이 가재미방류문제를 토의할 때였다.

사업소가 생겨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이다보니 누구도 선뜻 방도를 내놓지 못하였다.

가재미의 인공배양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였고 필요한 기술자료는 물론 종자문제해결도 어려웠던것이다.

바로 그때 사업소일군들이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가재미방류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이다. 조건과 가능성을 론하기 전에 무조건 해내겠다는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목표부터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우자.

이렇게 되여 사업소에서는 올해에 수백만마리의 새끼가재미를 받아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가재미방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가운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수십마리의 가재미종자를 마련하였으며 추운 계절에 새끼가재미들을 자래워야 하는 조건에 맞게 배양못의 열보장체계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사업소의 기술력량은 당의 수산자원보호정책을 앞장에서 받들어갈 불같은 열정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간장한 연구사업을 벌려 인공배양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그 과정에 가재미알에서 백수십만마리의 새끼들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동시에 갓 난 새끼고기들을 충실히 자래우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면서 가재미를 대대적으로 방류할수 있는 토대를 하나하나 갖추어나갔다.

물론 새끼가재미들을 바다에 놓아주자면 아직은 품을 많이 들여야 하고 해결해야 할 기술적문제들도 있다.

그러나 리원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한치도 물러설수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가재미방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교무행정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어

오중흡청진제1사범대학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최근 오중흡청진제1사범대학 교원, 학생들의 실력이 부쩍 높아졌다.

지난 8월에 있은 교원양성부문 대학교원 외국어청취 및 회화경연에서 1등을 한데 이어 제4차 교원양성부문 대학생속독경연에서 1등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경연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대학초급당위원회가 교원,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교무행정사업에 대한 지도를 방법론있게 진행한 결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대학의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교원양성부문 대학교원들의 외국어실력판정에서 대학은 기대했던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학장의 생각은 깊었다. 물론 강좌, 학부단위로 교원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지 못한 점함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치중하면서 교원,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사업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못한 자기에게 근본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교무부학장을 비롯한 행정일군들과 함께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그 과정에 교원들의 외국어실력과 콤퓨터응용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강습을 조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대학에서는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강습들을 여러차례 조직하였었다.

하지만 사전준비를 면밀하게 짜고들지 못하다보니 강습이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초급당일군들은 교무행정일군들의 발기를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견성있는 준비에 기초하여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었다.

초급당위원장은 실력이 높은 교원들속에서 강사를 선출하고 제강을 잘 만드는 문제, 자연과목과 사회과목 그리고 실력이 높은 대상들과 낮은 대상들로 여러 학습반을 구성할데 대한 문제, 강습시간보장과 정상적인 실력판정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치밀한 조직사업이 안받침된 강습은 몇달동안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 과정에 교원들의 외국어와 콤퓨터실력이 부쩍 올라갔다.

교원들의 자질이 한계단 향상되고 학위학직소유자대렬이 늘어났다고 하여 학생들의 실력이 저절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교원들이 새 교수방법을 탐구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실력판정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도록 하였다.

교무과장이 학생들의 시험에 콤퓨터를 리용하자는 발기를 하였을 때였다.

일부 교원들속에서는 자연과목이라면 몰라도 사회과목시험에서는 콤퓨터를 리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도리머리를 저었다.

이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교무과장의 발기를 혁신적인것으로 보고 적극 지지해주었다. 초급당위원장은 정보기술강좌의 교원들을 자주 만나 그들이 일부 교원들의 우려를 해소시킬수 있는 방도들을 무단히 탐구하면서 시험프로그람을 하나하나 완성하도록 떠밀어주었다.

대학에서는 먼저 수학부의 한개 학급을 시범단위로 정하고 콤퓨터에 의한 실력판정을 받도록 하여 새로운 시험방법의 우월성을 교원들이 깊이 인식하게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시험에 콤퓨터를 리용하도록 하였다.

콤퓨터에 의하여 자기들의 실력을 판정받은 학생들의 반향은 좋았다. 교원들속에서도 학생들의 실력판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였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교원들이 학생들에 대한 과외학습지도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교무행정일군들이 학생들의 과외학습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도록 한데 이어 과목교원들이 높은 헌신성을 발휘하여 과외학습지도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대학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업들이 제기되는 속에서도 학생들의 과외학습이 어김없이 진행되게 되였다.

초급당일군들이 학장, 부학장을 비롯한 교무행정일군들과 매일 만나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면서 지도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대학전반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경험은 대학당조직들이 교원,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교무행정사업에 대한 지도를 짜고들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 홍남진국공장에서 — 본사기자 찍음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적극 도입

득장청년탄광에서

득장청년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여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장성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탄광당조직에서는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강화하여 과학기술로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드세게 내밀었다.

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통합채굴공정판리프로그람 등을 개발도입함으로써 경영관리의 과학화, 정보화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였다. 또한 갱들이 분산되여있는 조건에 맞게 현장과학기술보급체계를 구축하여 석탄생산에 이바지하는 기술혁신성과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였다.

공무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현행생산을 다그치는 속에서도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무전동사슬굴개콘베아를 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롭게 제작한 이 콘베아는 여러가지 우점을 가지고있다. 감속기와 전동사슬을 쓰지 않고 쉽게 만들수 있으며 만곡부를 형성함으로써 구배가 심한 채탄막장에서 탄상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석탄을 캐낼수 있다. 현재 시운전중에 있는 이 콘베아가 채탄막장들에 도입되면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된다.

탄광일군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기 위해 떨쳐나선 3대혁명소조원들의 투쟁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합심하여 사갱운반로선에서 탄차의 정상가동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고 나사압축기의 기름분리기를 자체로 제작도입하여 압축공기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일군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 대중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석탄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준

두메산골에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

초산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군중적운동으로 전국각지에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신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해이다.

장장 60년세월과 더불어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지방공업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당정책의 생활력을 실증하며 만부하로 돌아가는 지방공업공장들을 찾아 취재길을 달리던 우리는 얼마전 두메산골인 초산군을 찾았다.

예로부터 산이 높아 하늘도 좁아보인다는 이곳은 도소재지인 강계시에서 300여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다.

높고낮은 산발들로 둘러막힌 이 험한 산골군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인민사랑의 자욱이 새겨져있다는 생각에 골똘히 걸어가는 나무 한그루도 무심히 볼수 없었다.

산간오지 초산땅에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진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주체55(1966)년 9월 초산땅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군의 원료원천과 생산수단, 로력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지방산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앞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군내인민들의 생활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력사의 그날이 있어 천지개벽된 초산땅의 오늘이 있고 보다 살기 좋을 래일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초산군에 도착한 우리가 제일 먼저 들린 곳은 포도술공장이였다.

나지막한 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아담한 이 공장에서는 포도술과 여러가지 청량음료들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었다.

우리는 지배인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료식비를 돌아보면서 산골군인민들에게 보다 풍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다.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자체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맛좋고 시원한 청량음료를 많이 생산하여 군안의 주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배인의 목소리는 뜨거움에 젖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고 공장에서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돌배, 머루, 다래단물을 비롯한 청량음료를 생산하여 군안의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경도식행장고에 들어섰다.

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다. 갖가지 산열매들을 사랑접임한 용기들이 빼곡이 차있었던것이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흐뭇하였다. 산열매들이 그득그득 들어찬 그 하나하나의 용기마다에서 우리는 더 많은 청량음료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엿볼수 있었다.

맛좋은 음료들을 들며 기뻐할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는 창호지공장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초산군의 크지 않은 이 공장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닥나무껍질로 종이(조선종이)를 만들었으며 고려시기 조선종이는 질이 높아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였다.

그 닥나무껍질을 원료로 하여 공장에서는 초산의 특산물인 창호지를 짱짱 생산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과지를 리용하여 생산하는 포장종이와 위생종이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고 동행한 일군은 이야기하였다.

집집에 행복의 웃음소리 더해주는 지방공업의 위력을 우리는 장공장을 돌아보면서 더 잘 알수 있었다.

종업원이 수십명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이지만 본받을만 한 점이 많은 단위였다.

평아식장생산공정을 처음으로 창안도입한것으로 하여 전국의 식료공업부문에 잘 알려진 이곳에서는 간장, 된장들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다. 그 장맛이 하도 좋아 이웃군에까지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기름, 콩우유, 장콩임, 탕과류들을 생산하여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있다.

어제날 너무도 궁벽하여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성한 나무밖에 없었다던 초산땅, 그러한 고장이 지금은 자랑많은 고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였다.

일남에 대한 신심에 넘쳐 자체의 힘으로 살림을 꾸리고 행복을 가꾸어가는 초산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였다.

초산군의 그 어디에서나 들을수 있는 생산정상화의 동음,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으로 세차게 고동치는 복무자들의 불타는 심장의 박동이고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소리였다.

본사기자 신 철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동창군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외진 산골군인 동창군에 자랑이 늘어나고있다.

올해에 식료공장과 직물공장이 훌륭히 개건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것도 그 자랑들중의 하나이다.

지난해 7월초 군당책임일군의 방에서는 군당집행위원회가 진행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기념일을 맞으며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을 개건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산간벽지인 동창군에도 절세위인의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주체52(1963)년 7월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창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돌아보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세멘트와 모래, 마감건재를 비롯한 자재보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에 이어 회의마감에 군당책임일군은 그루를 박아 말하였다.

《명심해야 할것은 공장종업원들은 현행생산을 내밀게 하고 건설은 우리 일군들이 전적으로 맡아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렇게 되여 직물공장은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식료공장은 군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이 맡아 개건하게 되였다.

산간지대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를 심장속에 간직한 일군들의 투쟁열의는 이만저만 아니였다.

직접 시공주가 된 군의 책임일군들은 무엇을 하나 착상해도 최상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쳤다. 늘 전투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는 그들의 모습은 일군들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이런 나날속에 지방산업공장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여갔다.

군안의 일군들은 일신된 공장들의 면모에 맞게 설비들도 하나하나 새롭게 갖추어나갔다.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책임일군무리가 알장에서 밤이 샜도록 뛰여다니며 물수강을 비롯한 식료가공설비제작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해왔다.

그뿐이 아니였다.

공장종업원들이 리용할 문화후생시설의 마감건재 하나에도 그들은 심혈을 기울이였다.

하여 식료공장에는 식료가공설비들은 물론 목욕탕과 락구장 등 훌륭한 문화후생시설까지 갖춘 종합건물이 일떠서게 되였고 직물공장에는 군안의 학생들을 위한 교복생산기지가 나무랄데 없이 꾸려지게 되였다.

공원과 같이 꾸려진 구내에서 우리와 만난 식료공장의 한 종업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히 개건된 우리 공장의 그 어디에나 인민생활향상을 첫자리에 놓는 군일군들의 헌신적 복무정신이 어려있습니다.》

그 말속에는 당의 의도대로 인민의 심부름군, 참된 충복으로 살며 일해나가는 군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본사기자

영광의 일터에 꽃피는 자랑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견방적직장 이불작업반을 찾아서

비단실생산기지로 유명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는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작업반이 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작아도 자기 몫을 맡아하는 곳, 그곳은 다름아닌 이불작업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지난해 1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려진 현대적인 이불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하신 미소를 잊지 못한다.

그날로부터 어느덧 두해가 되여온다. 많은것이 달라졌다. 그때에 비할바없이 이불의 종류가 다양해졌는데 무늬만 놓고보아도 수십가지로부터 백여가지로 늘어났다.

이불작업반을 찾는 사람들도 날로 늘어나고있다.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달려오는 참관자들만이 아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이불을 뜻깊은 기념품으로 주고싶어 작업반을 찾는 주문자들이 많아지고있다.

어디에서 왔든 주문자들은 우리 원수님께서 보기 좋다고 평가해주신 색깔과 형태로 이불을 만들어줄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작업반에서는 새 가정을 이루는 신랑신부들이며 생일을 맞는 로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불도안프로그람도 완성하였는데 제품들이 날로 새로와지고있다고 한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이불에 대한 인기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속에서도 높아가고있다.

녕변견직공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비단천과 명주솜 등을 가지고 만든 이불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평양방문기념품으로 되고있다. 그럴수록 신들메를 더욱 조이는 이곳 종업원들이다.

짧은 기간에 이불작업반원들의 기능 또한 부쩍 올라섰다. 작업반의 어떤 키대이든 능란하게 다루기 위하여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 나날에 작업반은 더 큰 하나로 뭉치게 되였다.

현장에서는 이불도안창작을 위한 현상응모가 때없이 진행되군 하는데 작업반원들의 열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이불이 어느때나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 조선의 명상품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뜻과 마음을 합치는 작업반원들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일터에 모시였던 그날의 영광과 감격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견방적직장 직장장 윤기일동무는 작업반에 모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사진문헌앞에서 이렇게 목메여 말하였다.

《우리가 하는 일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불을 만드는 저희들에게 분에 넘친 영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인민의 행복, 인민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시였으면 평범한 저희들과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으시였겠습니까!》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이불작업반원들은 끊임없이 혁신하며 전진한다.

인민들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참답게 복무하기 위하여!

본사기자 조 향 선

취재길에서 만난 봉사자들

개천역 려객작업반 안내원들의 생활에서

얼마전 개천철도국에 대한 취재길에서 우리는 이곳 당위원회로 보내온 한통의 편지를 보게 되였다.

려행길에 오른 평범한 제대군관의 안해를 위해 바친 개천역 려객작업반 안내원들의 소행이 담긴 편지였다.

우리가 편지의 글줄에서 인민의 참된 봉사자들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한 일군이 개천역 려객작업반 안내원들의 미담이 담긴 편지가 온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은 우리의 걸음을 개천역으로 향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들은바그대로 개천역 초급당위원회에는 많은 편지가 쌓여있었다.

편지들에는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으로 가는 돌격대원들에게 온 작업반이 떨쳐나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준 이야기로부터 려행중에 해산한 산모에게 애기옷과 애기포단을 안겨준 이야기, 두해전 송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나날 손님들에게 콩우유를 만들어 봉사해주었다는 이야기 등 이곳 봉사자들의 소행들이 수많이 적혀있었다.

그중에는 렬차기다림시간에 애기어머니방을 리용한 손님들이 보내온 편지도 있었다. 아기들을 위해 놀이감들과 걸음마차까지 갖추어놓고 살뜰히 봉사해주는 안내원들의 친절한 모습에서 혈육의 정을 느꼈다고, 인민의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는 만포시의 한 녀성이 보내온 편지는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것인가.

려객작업반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안내원은 편지들에서 이름을 익혔던 을은경동무였다.

어떻게 되여 그런 좋은 일을 할수 있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손님들이 잊지 못하는 진짜주인공은 려객무원 신영희동무라고, 려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있는 기다림칸을 비롯하여 역사의 솔입문 하나에도 그의 헌신적복무정신이 깃들어있다고 하는것이였다.

신영희동무는 수십년을 역에서 성실히 일해오고있는 평범한 녀성이였다. 하지만 그가 가슴속에 안고 사는 지향은 참으로 뜨거웠다.

그는 가정을 이룬지 10년만에야 첫 아기를 낳게 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산모와 아기가 중태에 빠졌던것이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신영희동무는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생사기로에 놓였던 저와 아들을 구원해준것은 고마운 의료일군들이였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가 지금껏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갈 복무의 길이 다름아닌 보답의 길임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평범한 려객일군이 스스럼없이 더놓은 이야기, 거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 흐르는 아름다운 생활, 미덕의 향기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깊이 짐감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신 현 규

단천제련소 공업기술연구소 소장 리현모동무

자기 힘이 제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살아나가려는 강한 정신력과 그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는 과학기술력, 이것이 자강력의 정수입니다.》

나라의 위력한 유색금속생산기지인 단천제련소에 가면 많은 과학기술성과들 이룩하여 생산공정의 주체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한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단천제련소 공업기술연구소 소장 리현모동무이다.

수년전 제련소의 조액공정 현대화가 절실한 문제로 나섰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은 현대화에서 다른 나라의 기술도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당시 조액직장 직장장으로 사업하고있던 리현모동무는 이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평범한 로동자에 불과했던 자기가 당의 품속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료육제게에 망라되여 대학을 졸업하고 제련소현장기사로, 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한개 직장의 직장장으로까지 성장하던 나날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는 소스라치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 누가 시키지도 떠밀지도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탐구의 길에 주저없이 뛰여들었다.

그 길만이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당면한 생산지휘로 드바쁜 속에서 연구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에게는 늘 시간이 모자랐으며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기어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를 딛고 일어서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지닌 그는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전문연구기관의 성의있는 방조밑에 끝끝내 조액공정의 현대화에서 나서는 기술을 완성하고야말았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직장장으로 일할 때에는 물론 공업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사업하는 나날에도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생산정상화와 생산공정의 주체화실현에 적극 기여하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군 한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살아나가려는 강한 정신력을 지닐때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본사기자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유전의학연구소 연구사인 조신옥동무의 가정에 경사가 났다.

얼마전 한날한시에 어머니인 조신옥동무는 교수의 학직을, 딸인 맹유경동무는 석사의 학위를 수여받았던것이다.

조신옥동무의 남편인 교수 박사 맹태원동무도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촉매화학연구소에서 실장으로 사업하고있어 이들을 두고 사람들은 교수박사부부, 연구사가정이라 부른다.

한생을 과학연구사업, 교육사업에 바쳐가고있는 스승의 성과를 축하하여 아름다운 꽃다발을 안고 찾아온 제자들의 마음속에 당의 과학중시, 교육중시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깊이 새겨진다.

당의 품이 아니라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아니라면 평범한 가정에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오늘의 기쁨이 클수록 주인공들의 가슴속에 보답의 열의도 더욱 끓어오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 동 규

실리적인 배구훈련기재 연구제작

강계체육대학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적립장에서 체육종목별기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며 특히 당에서 중시하는 종목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최근 강계체육대학의 교원들과 연구사들이 선수들의 훈련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배구공발사기를 연구제작하였다.

새롭게 연구제작한 배구공발사기는 체육종목별기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실천하는데서 의의가 큰 체육훈련기재이다.

배구공발사기는 임의의 각도와 속도로 공을 발사하게 되여있어 인기가 대단하다.

특히 련락공, 처넣기공, 타격공 등을 가상한 여러가지 비행자리길을 그리는 공이 임의로 날아가게 되여있어 훈련에 매우 실용적이다.

무단히 정신하는 과정에 완성된 배구공발사기는 배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대학에서는 종목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현실성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학장 차정수, 부학장 김천일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군들은 배구공발사기와 같이 교육사업과 밀접한 련관이 있는 과학연구과제들을 선정하고 짧은 기간에 접속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었다.

체육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교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교육사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우리 식의 배구공발사기를 연구제작할 대담한 목표를 제기하고 그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이들은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그리하여 배구공발사기를 연구제작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번에 연구제작한 배구공발사기를 동작시킨 결과 이 기재를 리용하면 얼마든지 배구기술을 련마할수 있다는것이 실천적으로 확증되였다.

체육종목별기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배구공발사기는 제22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강계체육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여러 체육종목들의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지 혁 철

사랑의 전용봉사선과 함께 20여년

평안북도배길표식사업소 선장 정영일동무

평안북도배길표식사업소에는 한척의 륜다른 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해의 외진 섬들에서 생활하는 등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보내주신 전용봉사선들중의 한척인 《등대 10.3-3》호이다.

온정어린 이 배를 자기 몸의 한 부분처럼 여기고 지난 20여년동안 누가 보건말건 묵묵히 일해오고있는 한 당원이 있으니 그가 바로 평안북도배길표식사업소 선장 정영일동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정영일동무가 전용봉사선 《등대 10.3-3》호의 기관장을 거쳐 선장으로 일하기 시작한것은 1997년부터이다.

선장으로 임명받은 날 그는 밤길도록 배걸을 떠나지 못하였다. 비록 수심hp밖에 안되는 작은 배이지만 등대섬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의 젖줄기와도 같은 전용봉사선을 맡겨준 당의 믿음이 한없이 크고 고마와서였다.

얼마나 많고도 많은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한가득 실려있는 배인가.

문득 그의 머리속에는 며칠전 수운도에서 공부하는 어려명의 소학교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새 교복과 학용품들을 싣고 그곳에 갔을 때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그날 벰시나는 책가방이며 멋진 교복들을 받아안고 좋아라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 등대원이 눈물이 글썽해서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았다.

《참 좋은 세월이요. 옛날같으면 섬놈의 자식들이라고 사람축에도 들지 못했을 저 애들이 나라에서 세워준 분교에서 공부도 하고 저렇게 앉은자리에서 철따라 새 교복이며 학용품까지 공급받고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오.》

정영일동무는 등대원의 그 말을 음미해볼수록 자기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였다.

이보다 앞서 정영일동무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임무가 맡겨졌다.

국가적조치에 따라 수운도로부터 수심mile 떨어진 랍도에 등대함이 새로 일떠서고 등대원들과 가족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해당 섬에 대한 려객수송과 물자수송도 함께 맡아해야 하였던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수운도에서 랍도까지의 항해길은 때없이 부는 태풍과 사납게 이는 물결로 하여 항해술에서 제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춤하는 험한 바다길이였다. 게다가 조국이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서 기름 한방울, 배부속품 한개도 몹시 귀하였다.

하지만 정영일동무와 선원들은 서해의 등대섬들가운데서 복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랍도의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자기들이 맡아한다는 긍지로 하여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멀리 있는 자식일수록 더 원심을 쓰는 어머니처럼 조국의 사랑은 끝없이, 끝없이 서해의 외진 섬들에로 흘러들었다.

랍도의 한명의 학생을 위해 분교가 생겨나고 철따라 첫물과일이며 갖가지 식료품들이 등대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공급되였다.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등대섬에 일떠섰다. 그에 쓰인 세멘트며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과 물자수송을 전용봉사선 《등대 10.3-3》호가 맡아하였다.

그러나 정영일선장과 선원들은 힘든줄 몰랐다. 자기들이 바로 등대섬사람들에게 조국의 사랑을 전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맡고있다는 자부심으로 하여 그들은 사나운 풍랑도 웃으며 헤쳐나갔고 배의 정상항해에 필요되는 기름이며 부속품들도 자체로 해결하였다.

지금도 정영일선장의 자식들이 즐겁게 추억하군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는 다 자라 시집도 가고 3대혁명소조원을 거쳐 어느 한 공장의 생생한 기술자로 일하는 오누이들이지만 어렸을 때에는 늘 배에서 살다싶이 하던 아버지, 고장난 배기관을 살리기 위해 집세간들까지 서슴없이 내간 아버지가 얼마나 야속했던지 모른다.

그러한 남편을 보다 못해 하루는 안해인 림미향녀성이 이렇게 말하였다.

《금방이 아버지, 당신에게는 배가 그렇게도 소중한가요. 어쩌면 딸애가 그리도 애지중지하던 손풍금까지 내갈수 있는가 말이예요.》

그날 안해의 원망어린 눈길을 바라보던 정영일동무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손풍금을 남달리 잘 타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남다른 사랑을 받던 옥별이, 잠들 때면 언제나 손풍금을 곁에 두고 자던 딸애의 귀여운 모습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다음순간 그의 눈가에는 멀리서도 배의 불빛을 알아보고 손저어 반갑게 마중하던 수운도와 랍도의 등대원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그 광경을 머리에 떠올리며 정영일동무는 안해에게 말하였다.

《미안하오. 당신이 혼자서 아이들도 키울래, 집안일도 돌볼래 수고가 어간 아니지. 하지만 이 깊은 밤에도 수운도와 랍도에는 등대를 지키는 등대원들이 있소. 당에서는 그들을 조국의 불빛을 지키는 숨은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등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해주기 위해 마음을 쓰고있소. 바로 우리 배가 당의 그 사랑을 등대섬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있단 말이요.》

정영일선장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감정은 한겨울의 험한 바다길도 서슴없이 헤쳐나갈수 있게 한 추동력이였고 건조된지 40여년이 지난 전용봉사선을 새것과 다름없는, 언제나 출항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배로 되게 한 비결이였다.

20여년세월 사랑의 전용봉사선과 함께 험난한 바다길을 헤치며 지구를 몇바퀴 돈것과 맞먹는 머나먼 항해길을 이어온 정영일선장의 앞가슴에 번쩍이는 훈장은 없다.

하지만 그는 조국의 불빛을 지키는 숨은 애국자들인 등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전용봉사선 《등대 10.3-3》호의 선장으로 일하는것을 더없는 긍지로 여기고있다.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배, 등대섬사람들에게 조국의 사랑을 전하는 젖줄기와도 같은 전용봉사선의 선장으로 일하려는것이 그의 굳은 결심이다.

본사기자 서 남 일

성실한 탄부

지난 10월초 령대탄광 5갱 채탄소대장 리학만동무가 속한 중대는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중대가 거둔 이러한 성과를 두고 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리학만동무의 노력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년초부터 마음의 신들메를 튼튼히 조여매고 이신작희으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이끌어온 그였던것이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제대배낭을 탄광에 풀어놓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탄부가 되였다. 처음 해보는 막장일을 하나하나 착실히 배워 짧은 기간에 기능공이 된 그는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매일 한번을 기세좋게 밀어냈다.

해마다 중대의 석탄생산계획수행을 위해 말없이 스스로 일을 찾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면 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그의 모습은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변함이 없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지하막장에 애국의 지욕을 묵묵히 새겨가고있는 그의 가슴속에 불타고있는것은 한줌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하나의 지향이였다. 이런 그였기에 언제인가 막장에 물이 터졌을 때에도 소대원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몇시간만에 현장을 복구하고 석탄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그는 지난 기간 뜨거운 동지애와 헌신성을 지니고 어려명의 탄부들을 기능공으로 키웠으며 집단과 동지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소대원들의 생산열의를 높여주기도 하였다.

로농통신원 김 봉 일

필리핀에 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귀국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 백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필리핀에서 진행된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련맹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에 참가하고 17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박영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7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억센 기상이 비낀 조선의 국수 소나무(2)

우리 나라에는 기묘한 자태를 가진 수백년 자란 천연기념물 소나무들도 많고 청신하고 수려한 모습으로 명승의 아름다움을 한껏 돋구어주는 소나무군락들도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명산과 명승지는 물론 그 어디에나 소나무들이 천태만상의 경관을 펼치고있는 우리 조국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으뜸가는 소나무박물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소나무는 조선의 기상입니다.》

우리는 자연박물관 식물관에서 조선의 국수 소나무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식물학자들을 만나 위대를 계속 심화시켜나갔다.

소나무의 생태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산림연구원 산림육종학연구소 실장 박사 엄영일선생은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 대단히 강한 국수 소나무는 기온이 낮은 랑강도 해산지방과 같이 엄혹한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추위견딜성이 센 수종으로서 우리 인민의 강의한 기상과 함으로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세월의 풍상고초를 다 이겨내면서 꿋꿋이 자라는 소나무, 눈서리속에서도 언제나 푸르싱싱한 자기의 본색을 잃지 않는 소나무!

바로 여기에 어떤 곤난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며 절개와 의리를 변치 않는 우리 민족의 넋이 비껴있고 백절불굴의 정신을 지닌 우리 인민의 강의한 성격과 기질이 체현되여있는것이다.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소장 리광호동무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조선지도를 죽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나라의 이름난 소나무산지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금강산의 창터소나무림, 송도원의 솔숲, 리원군의 100리송정, 철산장송…

하나하나 짚아볼수록 내 나라의 명산, 명승지들치고 소나무산지가 아닌 곳이 거의나 없었다. 금강산과 구월산에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은 가파로운 벼랑턱이나 절벽에서 자라는 소나무들이 특별히 많고 바다가명승지들에는 아름답고 수려한 솔숲이 무연하게 펼쳐져 백사청송을 자랑하고있는것이다.

리광호소장은 흙 한점 없는 바위꼭대기에서도 락락장송으로 억세게 자라는 소나무를 보면 굳센것과 부드러운것, 아름다운것이 신기할 정도로 잘 조화되여있다고 하면서 마음은 깊고 의지는 강하면서도 소박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우리 인민의 민족적성격과 구체적인 생활감정이 비껴있는 소나무여서 우리 인민들이 남달리 사랑하는것 같다고 의미깊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뚝깊은 눈가에 깊은 사색을 실어가면 천산농업종합대학 과학연구원 부원장 원사 교수 박사 박제은선생은 소나무들이 같은 종이라고 해도 분포지역에 따라 천태만상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소나무가 기원된 력사가 오래고 소나무생육에 필요한 자연조건이 매우 다양한것과 주요하게 관련된다고 하였다.

세 면이 바다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는 어디를 가나 높고낮은 산들과 맑은 강이 있으며 사계절의 구분이 명확하고 소나무의 성장에 매우 적당한 누기조건과 해비침조건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는 기상기후, 지형, 토양의 다양성으로 하여 명산은 명산마다, 바다가는 바다가대로 소나무의 독특한 운치가 뚜렷이 살아나는것이다.

식물학자들의 흥미진진한 《소나무강의》에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모은것은 천연기념물인 금강산의 창터소나무림이였다.

금강산의 외금강 구룡연구역 신계동입구에 있는 창터소나무림의 밑도는 정보당 450여대로서 제일 큰 나무의 높이는 30m나 된다. 아름이 너무도 커서 여러 사람이 팔을 맞잡아서야 둘러감을수 있는 나무들도 있다고 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금강산을 《산악미의 왕자》라고 불러왔다.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에는 《돌이 만가지 재주를 부리고 물이 천가지 재롱을 피우며 나무 또한 기특하니 천하절승이 여기 다 모인것 같다.》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그도그럴것이 하늘을 찌를듯이 톱날처럼 늘어선 1만 2천봉과 각양각색의 기암들, 수많은 담소와 못, 폭포들의 풍치는 소나무들의 기기묘묘한 자태로 하여 더더욱 수려하다.

우리가 금강산의 희한한 소나무경관을 그려보며 그 세계에 푹 심취되여있는데 산림연구원 산림육종학연구소 소장 박용일동무는 오늘도 우리 나라 명산, 명승지마다에 희한한 소나무절경들이 아름답게 펼쳐질수 있은것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가 있었기때문이라고 절절히 말하는것이였다.

해방직후 금강산에 일제가 송탄유를 뽑느라고 밑동에 마구 구멍을 뚫어놓은 소나무들이 있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먹다 못해 나중에는 소나무의 《피》까지 짜간 일제의 죄행에 분격을 금치 못해하시며 소나무들에 난 상처자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창터소나무림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나무들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금강산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무가 없으면 볼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나무들을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절세위인의 극진한 사랑속에서 창터소나무림은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돋구어주며 로동당시대에 더더욱 무성한 군락을 이루게 된것이다.

박제은선생은 바다가절경으로 세상에 자랑높은 송도원의 솔숲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사랑속에 자기의 아름다움과 푸른빛을 되찾았다고 하면서 송도원의 유정한 솔숲에로 우리의 사색을 이끌어갔다.

송도원에는 다른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오래 살고 높이 자라는 소나무들이 있다. 송도원이라는 이름은 서늘한 바다바람을 안고 사시절 푸르러 설레이는 솔밭에서 유래된것이라고 한다. 근면하면서도 강의하고 이악한 기질을 가진 우리 선조들은 바다바람과 모래의 이동을 막기 위해 700여년전 이곳 바다기슭에 소나무림을 조성하여 해안경치를 돋구고 생활리전도 보호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애써 마련한 송도원의 솔밭은 가증스러운 침략자들에 의하여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였다. 일제는 송도원의 소나무까지 마구 찍어내여 바다가명승지의 풍치를 파괴하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수백년의 년륜을 새긴 수많은 소나무들이 밑뿌리채 불태워졌다.

송도원의 옛 풍치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무를 찍어낸 빈자리에 소나무를 심고 수십년생의 큰 소나무들도 옮겨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도원의 오랜 소나무들은 금보다 더 귀중한 나라의 재부라고 하시며 로송들을 한대도 죽이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지금 송도원에 키높이 자란 무성한 소나무숲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이 고장 사람들이 너도나도 떨쳐나서 정성껏 심어가꾼 나무들이 자란것들이라고 한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철산반도의 바다가에 군락을 이루고있는 철산장송도 이곳 인민들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것이라고 한다. 1800년경에 이 고장 사람들은 해풍의 피해를 막고 농사를 잘 지어보려는 희망을 가지고 모래밭에 솔씨를 뿌렸는데 소나무가 잘 자라 그후 계단식으로 바람막이숲을 조성하였다.

서해안일대에서 손꼽히는 소나무림인 철산장송은 수천m의 길이로 무연하게 펼쳐져있는데 그 대부분은 해방후 우리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계획에 따라 조성된것이라고 한다. 소나무림에는 100년이상 자란 나무들도 많다. 아마도 송도원이나 철산반도에 무성한 솔숲이 인공적으로 조성될수 있은것은 그 고장 사람들이 소나무를 자기 지역의 토양조건에 맞게 심고 가꾸는 방법을 터득한데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척박한 땅에 소나무를 심을 때에는 구뎅이를 크게 파고 그안에 부식토를 두텁게 편 다음 어린 나무모를 세우고 걸흙과 속흙을 차례로 넣어주면서 물을 충분히 준 다음 나무를 약간 들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흙이 뿌리에 잘 밀착되면서 제대로 놓이게 된다. 나무를 심은 다음에는 땅이 마르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나무주변을 폭폭히 밟아주고 가랑잎이나 잡풀, 잡관목가지를 잘게 잘라 덮어준다.

우리는 대대손손 이 땅에서 자라나게 될 애국적인 후손들에 의해 내 조국 그 어디에나 아름다운 솔숲이 펼쳐지고 인민의 기쁨이 끝없이 꽃펴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식물학자들의 련이은 소나무명산지자랑은 끝이 없을듯싶었다. 송도원의 소나무자랑은 칠보산의 송이버섯자랑에로 계속 이어졌다.

칠보산의 송이버섯만 놓고보아도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Pinus densiflora* 소나무의 명산지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실장 김철남선생은 자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예로부터 일곱가지 보물에 비기여 칠보산이라고 하였는데 그 보물들중에서 송이버섯을 제일먼저 꼽아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칠보산은 세계적인 송이버섯산지이다. 송이버섯은 우리 나라의 국수로 제정된 소나무의 산지에서 자라는것이 제일 품질이 좋은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칠보산과 금강산, 양력, 표항산, 구월산을 비롯한 여러곳들에서 나는 송이버섯은 맛과 향기가 특별히 진한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명산물로 공인되고있다. 칠보산이야말로 갖가지 진귀한 보물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자랑이고 내 조국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명승의 나라, 으뜸가는 소나무의 나라이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절로 갈마들었다.

우리의 눈앞에는 소나무와 송이버섯과 련관된 칠보산의 일만경치가 금시 펼쳐지는것만 같았다. 2개는 송이버섯갓같고 다른 하나는 금시 땅을 차고난 통송이같아보이는 칠보산의 송이버섯바위, 겨울철에 흰눈을 띠인 소나무가 장관을 이룬 칠보산의 설경, 푸른 소나무들을 톺대마냥 떠이고서있는 한적의 배같아보이는 해칠보솔섬…

정녕 내 나라는 가도가도 끝이 없는 세계적인 소나무명산지이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황홀한 소나무박물관이였다.

관록있는 식물학자들과 함께 소나무명산지들에로 연방 화살표를 그어가는 우리의 마음은 저으기 흥분되였다. 식물학자들은 천연기념물들인 상원암 앞마당에서 자라는 표항산소나무와 우에서 내려다보면 번데수리가 날개를 펴고 금방 날아가려는것만 같은 가진소나무, 진달래와 소나무숲이 잘 어울려있는 구월산이며 총석정의 소나무풍치, 해금강솔섬, 홍원솔섬, 명사십리, 마전, 우산장, 시중호, 석탑구곡, 동림폭포 등 바다가, 섬, 호수가, 폭포 할것없이 소나무숲이 아름다운 절경을 이룬 명승지들과 명소들을 빠짐없이 다 꼽아나갔다.

들으면 들을수록 푸르고 장쾌하고 수려한 국수 소나무가 무성한 숲을 이룬 내 조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가득 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명승은 명승마다, 명산은 명산마다 세상에 늘도 없는 소나무박물관을 이룬 풍요하고 아름다운 내 조국, 이 땅에서 대대손손 살아가는 우리 인민은 그 얼마나 행복한가.

※ ※

소나무는 슬기롭고 아름답고 강의한 우리 민족의 기상이며 우리 국가의 강인성의 상징이다.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제모습을 잃지 않는 국수 소나무!

소나무의 억센 기상은 한마디로 백절불굴, 절대불변성이라고 할수 있다.

쥐이면 쥐일지언정 굴하지 않는 강의한 정신으로 외세의 발굽밑에 짓밟혔던 나라를 기어이 다시 찾은 인민, 천후 백년 한장 성한것이 없는 빈터우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며 천리마의 억센 나래를 펼친 인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여 우리 민족의 강인성을 온 세상에 떨친것이 바로 영웅적조선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이다.

력사의 모진 광풍을 깔들이며 최후승리의 봄을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용하고 강인담대한 정신적기개를 높이 떨치며 조선의 국수 소나무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무성한 거목으로 푸르싱싱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수 정

우리 민족의 특색있는 비물질문화유산—조선씨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씨름은 조선사람들이 좋아하는 전통적인 민족경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우수한 비물질문화유산의 하나인 조선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서로 잡고 손과 다리, 몸통을 리용하여 넘어뜨리기를 겨루는 민족체육경기이다.

우리 인민들은 먼 옛날부터 로동의 쉴참이면 자주 씨름판을 벌려놓고 승부를 겨루었으며 특히 민속명절들에는 큰 규모의 씨름경기를 진행하였다.

조선씨름이 매우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는것은 고구려시기의 무덤들인 씨름무덤과 장천1호무덤의 벽에 씨름을 형상한 장면들이 그려져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벽화들은 그 시기에 이미 씨름이 널리 보급되여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씨름은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널리 보급되였는데 사람들은 로동의 여가와 추석을 비롯한 민속명절을 계기로 씨름경기를 자주 진행하군 하였다.

지난 시기의 조선씨름은 그 형식과 진행방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지방별로 평안도씨름, 황해도씨름, 함경도씨름 등으로, 나이 등에 따라 애기씨름과 중씨름, 상씨름, 장년씨름으로, 씨름을 시작하는 자세에 따라 선씨름과 앉은 씨름으로 나눌수 있으며 승부를 가르는 방법에 따라서도 여러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 조선씨름은 그 형식과 진행방법, 씨름기술수법과 전술이 과학적으로 더욱 체계화되고 풍부화되였다.

두 사람이 1:1로 맞서 넘어뜨리기를 겨루는 경기는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진행해왔는데 그가운데는 허리띠를 매고 하는 씨름도 있다.

그러나 조선씨름이 다른 나라들의 씨름들과 차이나는 중요한 특징은 허리띠와 다리띠를 결합하여 만든 샅바를 리용하여 진행한다는것이다.

물론 샅바도 력사적인 단계를 거쳐 오늘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여왔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조선씨름이 자기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전해져오는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내력과 투지, 힘과 지혜를 키워줄뿐아니라 가정과 마을, 집단성원들사이에 화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민속명절들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씨름경기가 진행되게 되면 여기에 출전할 선수들의 가정에서는 부모나 안해, 자식들이 자기 아들이나 남편, 아버지가 경기에서 꼭 이기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경기준비를 방조해주고 이웃들과 선수가 속한 집단의 성원들도 여러가지로 성의를 표시하며 선수들을 고무해주군 한다.

남녀로소 할것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가운데 경기가 시작되면 선수들이 다채로운 씨름기술수법들을 적용하며 힘과 기술을 겨루는 장면도 볼만 하다. 그에 못지 않게 손에 땀을 쥐고 경기모습을 지켜보고 경기에서 이긴 자기 선수를 둘러싸고 열광적으로 축하해주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채로우며 바로 이 모든것이 하나의 씨름풍경을 이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 호상간에는 신뢰와 협조의 긴밀한 뉴대가 이루어지며 그것은 곧 집단의 화목과 단합에로 이어진다.

흥성이는 씨름판에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해나가는 민족성의 전통적인 내용을 고수하면서도 인민들의 감정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세련되였으며 사회적으로 널리 장려되고있다.

중앙과 지방들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여러 계기들에 씨름경기를 자주 진행하고있다. 매해 민속명절인 추석을 맞으며 평양에서 성황리에 벌어지고있는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는 전국적규모의 씨름경기로서 대인기를 모으고있다.

국가적으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조선씨름을 비롯한 민족의 우수한 유산들에 대하여 잘 알고 그것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씨름에 대한 자료들을 널리 소개하고 씨름경기들도 방영함으로써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도록 하고있다.

민족의 우수한 비물질문화유산의 하나인 조선씨름은 오늘날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민족적향취를 더해주고 사람들모두가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빛내여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 로 철 수

어린이교통공원에 넘치는 기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로 흥성이는 해주어린이교통공원을 찾았다.

당의 은정속에 또 하나의 배움터로 특색있게 꾸려진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끌었던것이다.

반갑게 맞아주는 소장 최명수동무와 함께 우리는 먼저 교통안전교육관으로 들어섰다.

자동차모양을 형상하여 산뜻하면서도 통심에 맞게 건설된 2층짜리 건물의 외형도 특색있었지만 그 내부 또한 훌륭하였다.

빨간색의 긴의자며 꽃잎무늬가 새겨진 문들, 계단에 형상한 발자국이며 벽면들을 꽉 채운 각종 상식소개판들과 만화그림들 등 모든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대번에 끌도록 아기자기하면서도 교양적가치가 있게 꾸려져있었다.

교통전자도서실, 통전기재모의훈련실 등 어느곳을 돌아보아도 당의 뜻대로 꿈들여 마련한 아이들의 배움터라는것이 알렸다.

문득 어느 한 방에서 기쁨에 넘친 아이들이 지마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리로 향했다.

알고보니 립체물동체험실에서 갖가지 립체물동영화를 보고 나오는 아이들이였다. 영화를 본 소감을 나누느라 여념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호뭇하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부원 장련미동무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풍부한 교통안전지식들을 배우고 실지체험을 통해 공고히 다지게 되니 교원들과 부모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나어린 학생들이 한번 오면 또 오고싶어하고 이곳에서 배운 내용을 놀라울 정도로 빠짐없이 기억한다는 교원들의 반영도 좋았고 이제는 자식들이 교통질서에 대해 어른들만큼이나 잘 안다는 부모들의 반영도 좋았다.

공원이 개원되여 보름 남짓한 기간에만도 수십개 단위의 수천명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소장은 후대들에게 떠주는 당의 은정에 대해 가슴뜨겁게 이야기했다.

교통안전교육관을 나선 우리의 눈앞에 흥미진진하게 배운 내용을 실지 행동을 해가며 되새겨보는 아이들로 흥성이는 공원의 드넓은 전경이 안겨왔다.

체력단련 및 유희놀이구역이며 지능개발구역, 자동차놀이장, 모래놀이터구역 그리고 한개 거리를 련상시키는 공원안의 다양한 시설물들…

건늠길과 비탈길도 있고 네거리와 철길감시초소도 있으며 차굴, 공중다리도 있었다.

어린이자전거를 타고 교통규정대로 자전거길을 따라가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교통보안원의 물음에 또랑또랑 대답하며 어깨를 으쓱이는 소학생들도 있다.

당의 은정속에 어릴 때부터 건전하고 옳바른 교양을 받으며 앞날의 주인공으로 더욱 튼튼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밝고 행복에 넘친 모습을 기쁘게 되새기며 우리는 해주어린이교통공원을 떠났다.

김 수 정

음식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전국김치전시회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민족음식의 하나인 김치를 식생활에 적극 리용하고 그 가공방법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채로운 형식의 김치경연, 품평회들을 해마다 진행하고있다.

올해에는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김치전시회가 열리게 된다. 인민봉사부문과 대외봉사부문, 성, 중앙기관 봉사단위들, 평양시사회급양, 각 도(직할시) 급양봉사부문에서 선발된 료리사들과 평양시안의 가정주부들이 참가하는 전국김치전시회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전시회에서는 자기 단위들에서 만든 통배추김치와 짝두기를 포함하여 5가지의 김치를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며 육류판, 청류판, 경흥지도국, 표항지도국 료리사들의 시범출연도 조직하여 우수한 김치가공기술을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에게 보급하게 된다.

참관자들은 전시회에 참가한 료리사들로부터 김치가공방법에 대한 해설을 들을수 있으며 심사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김치를 현지에서 직접 맛볼수 있다.

전국김치전시회는 주체107(2018)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려명거리에 있는 료리촉진장에서 진행된다.

본사기자

적극 리용되고있는 태양열발전계통

자료에 의하면 최근 태양에네르기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빛발전계통과 함께 태양열발전계통이 리용되고있다.

현재 많이 쓰이고있는 태양빛발전계통은 태양전지를 리용하여 태양빛으로부터 전기를 얻는 발전계통으로서 태양전지와 축전지, 역변환기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이러한 태양빛발전계통은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쉬운 우점이 있으나 설비들의 가격이 비싸고 수명이 짧으며 발전원가가 높은 제한성이 있다.

태양열발전은 태양열집열장치로 태양빛을 집초시켜 높은 온도의 열을 얻은 다음 작업매질을 가열하여 증기타빈이나 스터링기관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태양열발전계통은 태양빛발전계통에 비해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능력이 큰 설비들로 구성되여있으므로 초기투자는 많지만 큰 규모의 발전계통을 구성하는 경우 kW당 투자가 작아진다.

태양열발전계통을 구성하는 설비들의 사용수명도 태양빛발전계통에서보다 길며 운영비도 적다. 태양열발전계통에서는 또한 폐열을 주변건물들의 랭난방에 리용하여 에네르기의 종합적리용률을 훨씬 높일수 있다.

최근 태양에네르기의 전면적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제작원가가 낮고 효률을 높일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태양열발전계통이 적극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태양열발전계통은 일반적으로 태양빛추종반사경들과 흡열장치 등으로 이루어진 태양열집열계통과 축열계통, 증기발생장치와 증기타빈발전기로 이루어진 발전계통으로 구성되여있다. 태양열집열계통과 축열계통에서는 열전도성기름이나 용융염 등을 가열매질로 리용한다.

태양열발전에서는 제작원가를 낮추고 효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기술개발이 계속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 맛있고 영양가높은 ◇

감자가루음식 몇가지

감자가루영양죽

음식감으로 감자가루 100g, 기름 20g, 대추 15g, 꿀 20g, 닭알 1알, 소젖 350g, 잣알 10g, 소금 2g을 준비한다.

기름을 두른 단 남비에 감자가루를 두고 잘 닦는다.

여기에 소젖을 부어 봉오리가 없도록 잘 풀어 감자가루죽을 만든다.

닭알은 까서 잘 풀어놓고 대추는 씨를 뺀 다음 성글게 썬다.

감자가루죽이 끓으면 썬 대추, 소금, 잣알, 꿀을 두고 맛을 들인다.

마지막에 곧 닭알을 부어 고루 섞은 다음 그릇에 담아낸다.

감자가루명태완자국

음식감으로 감자가루 50g, 돼지비계 30g, 명태 300g, 곤닭알 1알, 양파 30g, 사자고추 30g, 다진 파 25g, 다진 마늘 10g, 기름 40g, 참깨 0.3g, 소금 2g, 후추가루 0.3g, 맛내기 0.3g, 고추기름 20g, 물고기국물 300g을 준비한다.

제꿋이 손질한 명태는 살만 베내여 돼지비계와 함께 분쇄기에 넣어 간다.

여기에 감자가루, 다진 파와 마늘, 곤 닭알, 소금, 후추가루, 맛내기를 두고 고루 섞어 직경 2.5cm 되게 완자를 빚은 다음 180℃의 기름에서 튀긴다.

사자고추는 절반 갈라 씨를 턴 다음 삼직삼직하게 썬다.

양파도 사자고추와 같은 크기로 썬다.

기름을 두른 단 남비에 썬 양파와 사자고추를 두고 볶다가 물고기국물을 부어 끓이면서 튀긴 완자를 넣는다.

국물이 끓으면 고추기름, 소금, 후추가루, 맛내기로 맛을 들인 다음 그릇에 담고 다진 파와 참깨를 쳐서 낸다.

본사기자

갈산온천유적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병치료와 장수에 특효가 있는 천연자원인 온천을 적극 리용하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유적과 유물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민족의 재보이며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발전된 문화를 전해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조선봉건왕조실록》, 《동의보감》을 비롯한 옛 문헌들에는 선조들이 온천의 약리적효과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병치료에 리용한 내용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그리한 사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 바로 강원도 판교군 구당리에 있는 갈산온천료양소부근에서 발견된 갈산온천유적이다.

갈산온천은 단슬라돈천이며 예로부터 피부병, 신경통, 만성위염, 관절염 등 여러가지 병치료에 효과가 높은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갈산온천유적은 실내욕탕유적으로서 욕탕건물터와 그안에 설치된 4개의 수조로 이루어졌다.

건물터에는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주추돌들과 기단들들이 남아있으며 욕탕수조는 건물터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개씩 대칭으로 설치되여있다.

수조들은 길죽한 화강석의 윗면을 반원형으로 파내여 만든 수로와 련결되여 온천물을 공급받게 되여있다.

수조가 놓인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바닥전면에 화강석판들이 깔려있다.

욕탕건물터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온천용솟구가 있는데 온천유적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천물은 자연흐름식으로 수조에 흘러들게 되여있다.

《조선봉건왕조실록》에 의하면 이 유적은 조선봉건왕조 4대왕이였던 세종의 어명에 의하여 건설된것으로 볼수 있다.

력사문헌들에는 세종이 이곳에 온천욕실과 행궁을 건설하도록 하고 직접 와서 온천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현재 이 유적에서 동북쪽으로 수십m 떨어진 곳에 당시 건설되였던 행궁터자리도 남아있다.

여러 력사자료들로 미루어 갈산온천유적은 57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유적이라고 할수 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당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속에 오늘 우리 인민들은 나라의 풍부한 온천자원들을 마음껏 리용하며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고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 박사 김 인 철

관리소 대동문공원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추구역공원 롱구종목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

오늘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더욱 빛내여나가시는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하기에 세계 수많은 진보적인사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에 대해 격찬하고있다.

《민주주의, 자주, 발전》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토론회에 참가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과 리사들인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아프리카민주련합-기네민주당 총비서대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각계 인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자주성실현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멸의 지침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주체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와 전체 인민이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기에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통하여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도 주체사상이 카리키는 길을 따라 아프리카지역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며 전진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을 높이 찬양하고있다.

네팔신문 《고르카 엑스프레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보시고 주체사상에 대하여 서술한 신문사 책임주필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령토도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쳐가고있는것은 걸출한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석에 의해 창시되였으며 오늘 김정은원수께서는 모든 분야에서 그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신다. 조선에서는 주체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신것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류의 걸출한 수령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주체사상은 전세계에 급속히 전파되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혁명과 건설이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되고있다.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할수 없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였기에 조선은 그 어떤 제재에도 끄떡하지 않고있다.》

캄보자신문 《크메르 타임스》는 《조선의 자력갱생》 등의 제목들로 신문사대표단의 조선방문기를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대표단의 조선방문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수도 평양에서 첫눈에 안겨오는것은 바로 김일성주석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건립된 주체사상탑이다. 주체사상은 조선의 당과 국가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조선이야말로 자력갱생의 정신이 강한 나라이다. 조선인민은 자강력에 기초하여 참다운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웠다.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주체〉라는 말은 조선의 그 어디에서나 들을수 있었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생애를 위대한 태양의 한생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주체〉는 조선의 정체를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다.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제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인디아신문 《뉴델리 타임스》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마다에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안아올수 있은 요인의 하나가 다름아닌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자강력이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 소개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와 성과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제재와 봉쇄속에서 순전히 자체의 힘으로 이룩되였다, 그들은 외부의 압력이 강화될수록 더욱 분발하고 조건이 어려울수록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는 자력자강의 강자들이다, 바로 자력자강의 정신이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으며 그에 토대하여 인공지구위성을 제작, 발사할수 있었던것이다, 자강력이야말로 조선인민이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게 한 백승의 보검이다고 전하였다.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시였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시여 우리 공화국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민주콩고신문 《라 프로스페리테》는 최근 조선에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자주 울려나오고있다고 하면서 그 말에 담겨져있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일떠선다는 뜻이다. 조선의 자력갱생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각하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왔다. 조선에서는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강력제일주의가 강조되고있으며 첨단과학기술인재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그 진두에는 김정은각하께서 서계신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조선인민은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정원준

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포옹력을 지니신

가장 숭고하고 열렬한 동포애로 온 겨레를 묶어세우시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민족적량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하늘같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품에 안으시고 성스러운 통일애국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온 겨레는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인생의 극적인 전환

최덕신선생이 불미스러운 과거사와 결별하고 늦게나마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것은 인생의 극적인 전환이였다.

최덕신선생이 선친의 묘에 술이라도 한잔 붓겠다고 조국으로 힘든 걸음을 했던 때인 주체70(1981)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그를 만나주시였다.

뜻깊은 석상에서 최덕신선생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속죄의 말씀을 드리였다. 그의 말을 듣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이고 지금 나라가 분렬이냐, 통일이냐 하는 기로에 선 이때에 우리와 손을 잡고 통일을 위하여 한몸하여야 하겠다고, 자신께서는 최선생이 지난날의 일들을 씻어버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가진데 대하여 감사히 여기고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하해같은 도량에 감복한 최덕신선생은 그후부터 조국래방의 길에 자주 올랐으며 공화국에 영주한 이후에도 통일애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감복을 금치 못한 로목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0(1981)년 어느날 해외에서 찾아온 한 로목사를 접견하시였다.

그로 말하면 오래전부터 미국에 영주하면서 미국종교계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서 반공의식에 물젖음대로 물젖어있었다.

그는 조국땅에 첫발을 들어놓을 때 마중나온 일군들에게 고향인 평양을 조용히 방문하고 돌아가겠으니 자기와 관련하여 일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해방전 평양에서 목사로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그가 평양을 못 잊어 찾아왔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늦게나마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을 걸으려는 그의 민족적량심을 귀중히 여기시며 애국지사라고 불러주시고 오찬까지 베푸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식탁으로 초청하시고 먼저 선생이 식전기도를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고 권고하시였다.

로목사가 당황해하며 어쩔바를 몰라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생을 지켜온 신자들의 도리를 어겨서야 되겠는가고, 어서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였다.

순간 목사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위구심과 회의심은 삽시에 사라졌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에 감복되여 자리에서 일어난 목사는 식전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하늘이 낸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념원하여 기도를 올렸다.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요청한 그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저는 충심으로 김일성주석님을 위하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본사기자 장정철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

최근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북남협력사업들에 제동을 거는 미국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행위들을 폭로하는 사진전시회, 선전물배포, 서명운동, 벽보게재 등 각종 형식의 반미투쟁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있다. 투쟁참가자들은 북남관계의 《속도조절》을 강박하는 미국에 의해 일정에 올라있는 북남협력사업들이 지연되고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표시하고있다.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이 북남협력사업들을 가로막고있는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투쟁에 앞장서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평화협정운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를 비롯한 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은 련일 집회들을 열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각계층이 반미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집회들에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철회》, 《대북경제제재해제》 등의 구호들이 울려나왔다. 민주로총, 《전교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분렬적폐, 미군철수 반미원정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미군기지를 비롯한 곳곳에서 반미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진보련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남조선을 《미군이 지켜준다.》는 인식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미군철수운동에 총력을 집중할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서 반미기운이 강화되고있다. 대학생단체들은 《이 땅의 자주를 위한 대학생 반미전사》를 결성하고 초불시위와 집회, 기자회견, 선전물배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반미투쟁을 벌려고있다.

본사기자 박철준

되살아나는 역적무리의 발악적책동

박근혜역도의 탄핵과 함께 막다른 궁지에 몰려 기가 죽어있던 보수잔당들이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놀음을 계기로 다시 득세하고있다. 얼마전 박근혜의 특등공범자인 전 《국무총리》 황교안은 보수《정권》 10년간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역도를 공공연히 두둔해나섰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의 친박계패거리들은 북당과가 박근혜탄핵에 책임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느니, 탄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 《탄핵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느니 하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있다.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를 비롯한 친박계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탄핵을 《파쑈세력의 정치모략》으로 매도하며 악을 써대고있는 가운데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극우보수떨거지들은 초불집회 2년을 앞두고 서울시내의 곳곳에 쏟아나와 탄핵무효집회라는것을 열고 란동을 부리였다.

한편 《자유한국당》내의 박근혜잔당들은 《보수대통합》의 간판밑에 당상층부와 작당하여 악명높은 극우보수패거리들을 《자유한국당》에 무더기로 끌어들이는 등으로 지지세력을 확장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그저 스쳐지나보낼 일이 아니다.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 동족대결로 남조선을 희악의 인간생지옥, 파쑈의 만무장으로 전락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상태에 빠뜨린 천하의 역적무리인 박근혜잔당들이 또다시 머리를 쳐들며 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은 초불항쟁자들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2016년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의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을 계기로 가증스러운 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대중적인 초불항쟁을 개시하였다. 분노한 인민들의 단결된 투쟁에 의하여 민심을 등지고 외세의존과 파쑈독재, 북남대결에 광분하던 역도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그런데 이후 남조선에서 초불의 기세가 점차 사라지게 되자 탄핵세력을 받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박근혜잔당들은 지금 때를 만난듯이 승통을 얻고 다시 기여나와 위험천만한 반란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와 함께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혔어야 할 범죄자들이 《보수대통합》과 《정권재창출》을 부르짖으며 남조선정치판을 어지럽히고있는것은 심각한 사태이다.

남조선인민운동사를 돌이켜보면 반역무리의 공세로 하여 민주화투쟁의 성과가 무참히 말살당한 실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4.19인민봉기와 10월민주항쟁이후 남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의 열매를 군부독재자들에 의해 여지없이 짓밟혔다.

리명박, 박근혜역도도 남조선에서 보수패거리들에 대한 각계의 각성이 무디여진 기회를 타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약화되면 역적무리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기마련이며 민중의 세세상은 보수매당을 력사의 무덤속에 영영 매장해버릴 때에만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남조선인민운동사는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종치는 그 근원을 없애야 하며 독초는 뿌리채 뽑아던져야 한다. 박근혜잔당을 깨끗이 청산하지 않는다면 암흑의 력사가 되풀이되게 될것이다.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는 부활을 기도하며 민심의 지향에 악랄하게 역행해나서는 보수패당이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단호히 짓뭉개버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심철영

남조선언론

이전 《정권》의 역적행위 폭로

14일 남조선 《련합뉴스》는 박근혜역도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관계구축을 운운하며 일제의 과거죄악을 덮으려고 시도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역도는 피해자들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일본과의 성노예문제를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줄일 목적으로 《화해, 치유재단》을 내오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도 기각시키려고 시도하였다.

2016년 4-5월경 역도는 6월이면 《화해, 치유재단》이 설립되게 되니 8월까지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언론은 실제로 박근혜의 지시이후 법원행정처는 이전 《정부》와 짜고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배상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공정들을 속도있게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10월 《국정》롱락사건이 발생하면서 박근혜의 시도가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언론은 전하였다.

사법롱락주범들을 파면, 구속수사할것을 요구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광승태 사법롱단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최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법롱락주범들을 파면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사법롱락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사법부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날로 커지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법롱락에 가담하였던 판사들이 법관행세를 하고있다고 회견문은 단죄하였다. 회견문은 사법롱락주범들을 일시적으로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킬것이 아니라 파면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법원공무원들이 9일 서울에 있는 대법원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사법롱락사건의 주범인 전 대법원 원장 양승태를 구속수사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사법롱락에 련루된자들을 엄격히 심판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초불투쟁을 계속해나갈 의지

언론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초불항쟁 2년을 맞으며 각계의 투쟁들이 활발히 벌어졌다.

남조선의 민주개혁정당들은 초불항쟁 2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각종 형식의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민주로총은 《박근혜퇴진 초불 2주년 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초불 2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개혁을 거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였다. 그들은 특히 민족분렬로 인한 적폐를 끝장내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립장에서 북남관계를 풀어나갈것을 주장하였다.

진보련대의 한 인사는 아직도 부패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국회》에서 정치롱락행위를 일삼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 인사는 선거제도의 적폐를 청산할것을 요구하였고 민주로총 위원장은 적폐중의 적폐인 광승대일당의 사법롱락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재벌과 정보원, 검찰, 경찰 등 공안통치기구의 개혁, 선거제도의 개혁, 실업문제해결, 힘겨민들과 장애인들의 생존권보장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참가자들은 적폐를 청산할 힘은 민중에게 있다고 하면서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를 만들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도 초불항쟁 2년을 맞으며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본사기자 김철남

《쇄신》은커녕 진흙탕에 빠진 《자유한국당》

최근 《쇄신》과 《혁신》을 운운하며 분주탕을 피우던 《자유한국당》내에서 계파간 갈등이 또다시 첨예화되여 남조선언론계의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련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자유한국당》내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있는데 대해 보도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자유한국당》에 똑똑한 《혁신》이나 《쇄신》방향조차 없는데다가 초불항쟁이후 떨어져나간 여러 갈래의 세력을 마구잡이로 긁어모아 현 《정부》를 무작정 반대하는 식으로 범보수통합을 실현하려고 한것이 원인으로 된다고 언론들은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친박계, 비박계, 북당과 등으로 가뜩이나 갈래가 많은 《자유한국당》이 《태극기부대》라는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2월에 있게 될 원내대표선거와 다음해 2월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내의 갈등이 더욱 표면화되고있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신문 《한겨레》, 《경향신문》은 《다시 박근혜당으로 된 자유한국당》, 《쇄신은커녕 진흙탕에 빠진 자유한국당》 등의 제목으로 《자유한국당》이 사상 최대의 탄핵사태를 겪고도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또다시 주도권싸움만 벌려고있다, 《자유한국당》의 본색은 결코 바뀌여질수 없다, 권력쟁탈에 골두하는 《자유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련일 보도하고있다.

당권장악을 노린 치렬한 계파싸움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탄핵과 《대통령》선거, 지방자치제선거패배에서 교훈을 찾고 반성할 대신 권력쟁탈에 어념이 없다, 보수의 리념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 집단자체에 문제가 있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당은 해체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허울뿐인 《평화헌법》,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지난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현 수상 아베가 재선되였다. 그의 숙원은 자기 임기내에 헌법을 개악하는것이다.

현 일본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제정공포되여 6개월후에 시행되였다. 4개 단락의 서문과 10개 장 99개 조문으로 된 기본규칙, 4개 조문으로 된 보충규칙(11장)전문으로 된 일본헌법에서 근간으로 되는것은 반전, 평화를 내용으로 하는 9조이다.

일본의 집권세력과 언론들은 이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자랑하며 광고해왔다. 7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헌법조문은 단 한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일본집권세력이 지금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의 엄혹함》을 떠들며 《평화헌법》을 한사코 개악하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에 법써 주검으로 변하였다. 형체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넋도 생물학적기능도 없이 보존되여있는 미이라처럼 조문은 고쳐진것이 없어도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죽은 헌법이 되였다.

현 일본헌법 9조에는 국권을 발동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 그를 위한 륙, 해, 공군무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제되여있다. 피비린 살륙과 온갖 반인륜적만행으로 얼룩진 일본의 전범죄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평화에 대한 내외의 지향에 립각하여 만들어진것이다. 이 조항의 기능을 마비시킨 사약이 바로 일본집권세력이 즐겨 벌리는 헌법해석놀음이다.

일본정계에서는 《자위대》가 군대인가 아닌가를 놓고 론난이 자주 벌어지고있다. 아베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세계가 《자위대》를 군대로 보고있다고 떠들어대며 9조의 수정을 요구해나서고있다. 《자위대》가 군대이라면 그것을 조작해낸것부터가 위헌이라는것을 말해준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 공공연히 가담한 요시다반동정부는 1950년 8월에 7만 5 000여명의 경찰예비대를, 1952년 8월에 12만명규모의 보안대를 무었다. 그에 토대하여 1954년 7월 근 20만명에 달하는 륙, 해, 공군무력에 마치 군대가 아닌것처럼 《자위대》라는 명칭을 달아 조작해냈다.

이것은 헌법 9조의 문구와 따져볼때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당시 요시다반동정부는 《전쟁포기의 의사를 준수한다는것이 절대로 자위권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952년 3월 6일 요시다의 국회답변)는 황당한 해석으로 헌법 9조의 장애물을 돌파하였다.

발효된지 몇년 안되여 《평화헌법》은 이렇게 죽고말았다. 그후 일본은 헌법해석놀음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랭전시기 일본집권층은 《자위권이 있는 이상 그를 위한 실력조직인 자위대도 있어야 한다.》, 《자위대에 의한 무력행사는 전수방위에 한정한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위헌적인 무력 및 장비, 지휘관리체계를 갖추어놓았다.

랭전종식을 군사적팽창의 더없는 기회로 여긴 일본보수통치배들은 비대해진 전쟁수행능력을 《국제공헌》이라는 탈을 쓰고 해외에로 확장하기 위한데로 해석확대의 주되는 창끝을 돌리였다.

일본집권세력은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만들어 캄보자에 해외평장의 첫발을 내디디였다.

그때부터 1999년 주변사태법, 2001년 테로대책특별조치법, 2003년 이라크파병법 등을 련속 조작해내여 해외파병의 활동범위와 권능을 부단히 확대하였다. 이 모든것이 헌법해석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15년 9월 일본국회에서는 안전보장관련법이 채택되였다. 일본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헌법에 위반되는 이 법의 채택도 해석놀음으로 해치웠다. 그 다음해 3월에 정식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 헌법에 명칭조차 올라있지 않는 《자위대》무력은 《집단적자위권》을 가지고 《국제평화유지》라는 미명하에 세계 임의의 곳에 뻐젓이 진출하여 전투활동을 임의로 벌릴수 있게 되였다. 일본국내에서 보수집권세력의 이런 괴이한 헌법해석놀음을 막지 못하고있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다. 한때 헌법재판소를 내오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지지부진, 중도반단상태이다.

현 일본헌법 81조에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법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종심재판소이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런것만큼 최고재판소가 응당 위헌적인 법률이나 기타 법적조치들을 규제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가 집권당국에 명줄을 잡혀 권력의 시녀로 복무하고있다. 최고재판소 성원들은 내각이 지명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 임명된다. 그러니 정부의 무분별한 해석을 어떻게 제지시킬수 있겠는가.

1959년의 스나가와판결은 이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당시 최고재판소 장관이였던 다나까고따로는 권력에 추종하여 도꾜도 스나가와군사기지(미군기지)의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투쟁을 《위헌》으로 최종판결함으로써 일본의 무력보유와 미군주둔을 《합헌》으로 둔갑시켰다. 그뿐아니라 이 판례를 그후의 집권당국들이 헌법해석때마다 계속 써먹는 유력한 법적근거로 되게 해놓았다.

최고재판소가 이러하니 정부의 헌법문지기라고 하는 내각법제국의 준법의식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정부립법 즉 태반의 법률안들을 국회가 아니라 내각이 작성하여 국회심의에 제기하는데 이때 해당 법률안의 위헌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하는것이 내각법제국의 권능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내각법제국 장관자체가 정부의 임원으로 되여있기때문에 법률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부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여있다.

오히려 내각법제국은 언제 어느 정부가 어느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하였고 어떤 결정을 채택하였는가 하는것들을 고문서들에서 뒤져내여 집권세력의 해석놀음에 《법적타당성》을 주어설거지하고있는것이 직능처럼 되여있다.

오늘에 와서 어떤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국회청문회에서 피력하였을뿐인 답변서라든가 또는 국회에 상정조차 되여보지 못한 정부결정 지어는 정부의 한갖 자문회의나 간담회가 내놓은 보고서따위가 헌법을 제 구미에 맞게 해석할수 있는 법적근거로 되는 형편이다. 이 참담한 법제환경속에서 《평화헌법》은 법적기능을 완전히 잃고말았다.

헌법은 국가사회제도의 원칙과 기본방향,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이라고 자랑하는 국가의 기본법이 실지로는 헌법해석놀음으로 만들어진 안전보장관련법과 같은 잡다한 법률들에 의해 유명무실해지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의 헌법해석놀음에 의해 일본이 어디까지 왔는가는 오늘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국주의가 부활되였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는 등 국가구조도 그에 맞게 개악되였다. 태평양과 인디아양을 일본 《자위대》가 제 수역처럼 싸다니고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에 뻐젓이 참가하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아베세력은 미이라헌법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있다. 전쟁헌법을 국가의 기본법자리에 들여세우려 하고있다. 그것이 실행되면 일본은 해외침략을 합법화할수 있게 된다.

일본은 제국시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다. 그 후과를 가늠할수 없는 제2의 패망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장철

로씨야대통령 싱가포르를 방문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푸찐이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그는 싱가포르대통령 할리마 야꼬브와 담화를 나누었으며 수상 리시엔 룽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도이췰란드 군사비를 대폭 늘이려고 시도

도이췰란드가 군사비를 대폭 늘이려 하고있다.

9일 이 나라 련방의회 예산위원회가 제기한 지출계획에 의하면 다음년도 군사비를 현재보다 47억€ 더 늘일것이라고 한다.

스위스에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질것으로 예견

지구온난화의 후과로 스위스에서 기후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14일 이 나라의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세기 중엽에 이르러 7, 8월의 여름철에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2.5~4.5℃ 오르고 비내림량은 25% 줄어들며 극심한 열과 현상이 지속될것이라고 한다.

또한 겨울철의 기온은 2~3.5℃ 높아지고 눈내림량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것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폭력범죄 성행

영국의 런던에서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폭력범죄에 의한 사망자수가 119명에 달하였다. 12일 이 나라 내무상은 시에서 6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만도 여러건의 칼부림범죄가 감행되여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리스인들

그리스에서 3.4분기에 약 60만명이 세금을 물지 못해 체무자로 전락되였다.

13일 이 나라 국회는 이로써 9월말현재 전국적인 체무자수는 430만여명으로 늘어났으며 그들이 진 빚의 총액은 1 030억 9 000만€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83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등록번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통신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